

[1] 나눔

분류 1		분류 2	인터뷰 내용
내용	목적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내용	범위		12.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그리게.
내용	내용		13. 일반론은 싫네.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내용	수치		17.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네.
내용	내용		20. 중언부언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네.
내용	내용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되네.
내용	책임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내용	사례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내용	일관		30.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내용	주제		32.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표현	독창		1.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표현	강한		2. 자신 없고 힘이 빠지는 말투는 싫네. '~같다'는 표현은 삼가게.
표현	겸양		3. '부족한 제가와 같이 형식적이고 과도한 겸양도 예의가 아니네.
표현	비유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표현	쉽게		6. 쉽게 친근하게 쓰게.
표현	기타		8. 연설문에는 '~등'이란 표현은 쓰지 말게. 연설의 힘을 떨어뜨리네.
표현	반복		9.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한 킹 목사의 연설처럼.
표현	짧게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표현	수식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정성을 해칠 수 있네.
표현	칭찬		14. 치켜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치켜세우게. 돈 드는 거 아니네.
표현	단문		15.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표현	접속사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네.
표현	상징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표현	기타		19.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표현	기타		25.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헛갈리네.
표현	단어		28.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네. 영토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치하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표현	모호		31.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표현	나열		26. 나열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대선자금 수사...' 나열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형식	논리		29.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형식	배치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사람들은 뒤를 잘 안 보네.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형식	집중		27.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주게. 이곳저곳 출몰하지 않도록.
형식	기타		4.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2] 버림

분류 1	분류 2	인터뷰 내용
내용	목적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내용	범위	12.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그리게.
내용	내용	13. 일반론은 싫네.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내용	수치	17.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네.
내용	삭제	<u>20. 중언부언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네. (21과 중복된 내용, 삭제)</u>
내용	내용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되네. (20은 21 중복과 동일한 내용)
내용	책임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내용	사례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내용	일관	30.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내용	주제	32.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표현	삭제	<u>1.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연설에 해당되므로 삭제)</u>
표현	피해야 할 것	2. 자신 없고 힘이 빠지는 말투는 싫네. '~같다'는 표현은 삼가게.
표현	피해야 할 것	3. '부족한 제가와 같이 형식적이고 과도한 검양도 예의가 아니네.
표현	피해야 할 것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표현	지켜야 할 것	6. 쉽게 친근하게 쓰게.
표현	삭제	<u>8. 연설문에는 '~등'이란 표현은 쓰지 말게. 연설의 힘을 떨어뜨리네. (연설에 해당되므로 삭제)</u>
표현	삭제	<u>9.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한 킹 목사의 연설처럼. (연설에 해당되므로 삭제)</u>
표현	지켜야 할 것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표현	피해야 할 것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정성을 해칠 수 있네.
표현	삭제	<u>14. 치켜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치켜세우게. 돈 드는 거 아니네. (연설에 해당되므로 삭제)</u>
표현	지켜야 할 것	<u>15.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10번과 중복으로 삭제)</u>
표현	피해야 할 것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네.
표현	지켜야 할 것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머리에 콧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표현	삭제	<u>19.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자연스러운 글이 이해가 안되므로 삭제)</u>
표현	지켜야 할 것	25.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헛갈리네.
표현	지켜야 할 것	28.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네. 영토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치하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표현	피해야 할 것	31.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표현	삭제	<u>26. 나열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대선자금 수사...' 나열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u>
형식	논리	29.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형식	배치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사람들은 뒤를 잘 안 보네.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형식	집중	<u>27.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주게. 이곳저곳 출몰하지 않도록. (21 중복되므로 삭제)</u>
형식	삭제	<u>4.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연설에 해당되므로 삭제)</u>

[3] 줄임

분류 1	분류 2	인터뷰 내용
내용	1. 목적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득, 설명, 감동)
내용	2. 범위	12.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그리게. >> 글의 스케일을 크게
내용	3. 주제	32.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
내용	5. 기타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 사례를 활용
내용	5. 기타	17.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네.>> 객관적인 수치를 써서
내용	4. 원칙	13. 일반론은 싫네.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 일반론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용	4. 원칙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되네. >> 중복은 피하고
내용	4. 원칙	30.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 일관되게
내용	4. 원칙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 책임질 수 있는 말로..
표현	1. 지킴	6. 쉽게 친근하게 쓰게. >> 평소 사용하는 말로 쉽고 친근하게 (영토 > 땅)
표현	1. 지킴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 짧고 간결하게
표현	1. 지킴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 머리에 콕 박히는 말로
표현	1. 지킴	25.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헛갈리네. >> 한 문장에 사실 하나만
표현	1. 지킴	28.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네. 영토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치하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 평소 사용하는 말로 (6과 통합으로 삭제)
표현	2. 피함	3. '부족한 제가와 같이 형식적이고 과도한 검양도 예의가 아니네. >> 과도한 검양 (부족한 제가)
표현	2. 피함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 과도한 비유
표현	2. 피함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정성을 해칠 수 있네. >> 과도한 수식
표현	2. 피함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네. >> 접속사
표현	2. 피함	31.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 모호한 표현
형식	1. 논리	29.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 멋있기 보다 논리적으로
형식	2. 배치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사람들은 뒤를 잘 안 보네.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 두괄식으로

파워포인트 초본

내용	표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을 분명하게• 스케일을 크게• 한 줄로 주제를 표현• 일반론이 아닌 내 생각으로• 중복은 피하고• 일관되게• 책임 질수 있는 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켜야 할 것<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사용하는 말로 쉽고 친근하게- 짧고 간결하게- 머리에 콕 박히는 말로- 한 문장에 사실 하나만• 피해야 할 것<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겸양(부족한 제가)- 과도한 비유- 과도한 수식- 접속사- 모호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멋있기 보다 논리적으로• 두괄식으로

'16년 1월, 사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고서 노하우'에 대한 인터뷰 결과



* 인터뷰 일정, 대상 등을 추가할 것